“강 기자한테 1억 달러 줄게”… 발명가 박갑일 할아버지와 이산가족상봉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발명가인 박갑일 할아버지가 연구개발 중인 ‘에너지 발전장치’를 기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도착지를 가리키는데 어르신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차량이 길을 헤매는 동안 어르신이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노란 셔츠를 입고 있어요” 골목골목을 살폈다. 오르막길 끝에서 노인이 두 팔을 높이 든 채 흔들고 있었다. 박갑일 할아버지. 그는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기획한 사진다큐의 주인공 백성연 할머니의 남편이다. 할머니는 북에 가족을 둔 실향민이다.

노부부의 서울 홍은동 집을 찾았다.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넓지 않은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계가 맨 먼저 시선을 붙들었다. “어르신, 저건 뭡니까?”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명함을 내밀었다. ‘발명가 박갑일.’ 처음 받아보는 직업군의 명함이다. 이 기계는 할아버지가 연구 중인 ‘에너지(전기) 발전장치’다. 그가 장치의 핵심 기술이라는 톱니 샘플을 가져와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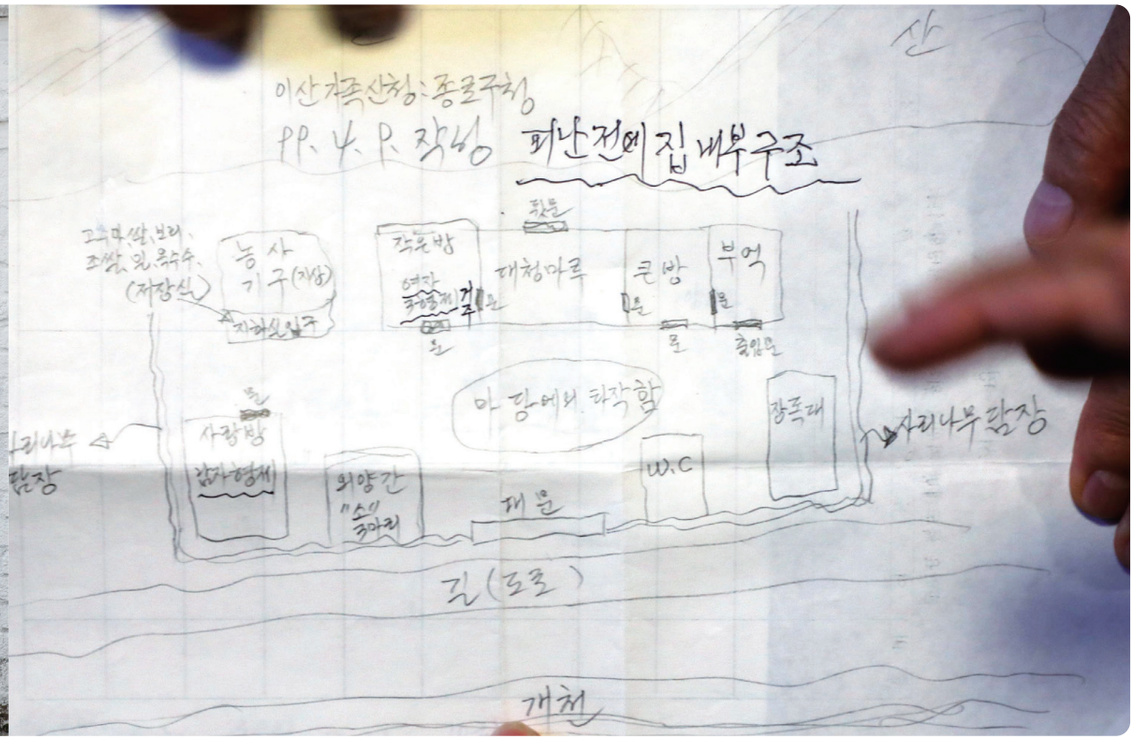
“희한한 일이지. 돌리는 속도보다 몇 배 빨리 돌아. 들어간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이론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냥 행복해했다. 나는 의례적인 호기심을 보였으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마감이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발전장치에 대한 어려운 설명과 한때 방화셔터를 발명해 큰돈을 벌었다가 망했다는 긴 얘기를 들은 후에야 본 취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질문에는 말수가 적은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답했다.

"어제 적십자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북에 집사람 가족들 생사확인 명단을 보냈다고 합디다" 전날 적십자 관계자는 내게 이산가족 예비후보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 없다고 했었다. 착오가 있었나. 이유는 이랬다. 부부는 각각 이산가족신청 등록을 해놓았다. 할머니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찾고, 할아버지는 처제와 처남을 찾는다고. 이번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뽑힌 것이다. "집사람이 이산가족이지만 추첨은 내가 됐어요. 허허허" 부부는 500명 후보에 뽑힌 뒤, 상봉 희망 여부와 건강상태 등 확인절차를 거쳐 북에 남은 가족의 생사확인을 의뢰한 2차 후보 250명에 선정됐다. "이산가족 찾기에 나선 지 35년 만이에요. 집사람이 가족 없이 외로우니까, 찾아주면 좋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이산가족 같아요. 하하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에서 종이뭉치를 들고 나왔다. 그간 작성했던 이산가족찾기 신청서와 기사 스크랩이었다. 20년 전에 쓴 구청 제출용 신청서

이산가족상봉을 앞둔 백성연 할머니와 박갑일 할아버지 부부가 집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옛 기억을 더듬어 설명한 고향집의 구조를 빛바랜 신청서 뒷면에 그려두었다.

는 빛이 바랬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젊었다. 신청서 뒷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내의 고향집 구조를 그린 거예요. 아내가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고 내가 그렸어요" 아내는 남편이 그려준 이 '사랑의 평면도'를 생전 처음 보듯 꼼꼼히 훑었다. 어린 시절 한 장면이 떠올랐을까. 할머니의 입가가 미소로 실룩거렸다. "여기 세 자매가 함께 방을 썼어요" 그림 속 방을 가리키는 할머니의 조금 커진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듬해 1·4후퇴 때 언니부부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고향에는 부모님과 두 동생이 남았다. 밀리고 밀려 대구까지 갔다. 언니부부와는 대구에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가족의 연이 끊어진 피난지 대구에서 4살 연하의 청년과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됐다. "당시 아내가 우리 집에 세 들어 살았어요. '남남북녀'라잖아요. 하하하하" 할머니가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이렇게 됐어요" '잠깐'이 70년 세월이었다. 17세 소녀는 할머니가 됐다. "죽기 전에 고향 땅이라도 밟아봤으면…, 내 핏줄 한 번 만나 봤으면…. 동생들 만나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동생들이 살아있다면 82세, 79세 노인이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고향 평안남도 순천군 내남면 원봉리 하동은 당시 20여 가구가 살았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나섰다. "작은 시골마을이고 가까운 친척들도 살았던 곳이라 상봉이 희망적이에요"

몇 주 뒤, 남북이 이산가족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 연락을 주겠다던 어르신의 전화가 없었다. 최종 상봉에 탈락했

이산가족상봉을 하고 돌아온 부부가 북측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식탁보 등 선물과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을까.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전화를 걸었더니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이거. 허허허. 강 기자, 이번에 최종 확정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북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나요. 처남 와이프, 처제 남편(동서)과 조카요. 처남, 처제는 다 죽었어요. 고맙습니다. 강 기자 덕분에 가게 됐어요"

"아이고 어르신, 무슨 말씀을…"

"이게 560대 1이에요. 56000명 중에 100명이야"

이산가족상봉을 나흘 앞두고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지난번 취재 중에 찍은 부부의 사진과 기사가 난 신문 몇 부를 기념으로 챙겨갔다. 할아버지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 안내서' 부터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남동생은 2000년에, 여동생은 올해(2018년) 3월에 사망했다. "다 죽고 없어요. 조금 일찍 만났으면 이 사람 여동생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조금만 더 살았어도…" 종이에 시선을 둔 채 노부부는 안타까워했다.

부부는 안방에서 짐을 싸던 중이었다. 금색 보자기로 싼 세 개의 꾸러미가 보였다. 꾸러미에는 겨울 내복, 여름옷, 양복 옷감과 벨트, 영양제 등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스윽 바라보더니 물었다. "이거 동서한테 줄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시계였다. 할아버지가 발명가협회장을 하던 때 받은 기념품이란다.

"어르신 북측에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 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칠 수 있겠지? 괜한 시빗거리 만들 필요 없지. 허허허"

이번엔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어려서 헤어져 정이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핏줄 만난다 생각하니 가슴 벅차요. 내 부모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요"

상봉을 앞둬선지, 발전장치 얘기를 들어줄 대상이 앞에 있어선지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나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가 연구개발 중인 장치로 옮겨 갔다. "고속일수록 질량이 커진다. 기가 막힌 과학이론이야. 1+1이 2가 아니라 2.1이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엎어버리는 거야. 이 장치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야. 핵폭탄보다 무서운 거지. 아하하. 노벨상이야 이건. 물리법칙을 바꿔버리는 장치야. 에디슨은 1000번 설계했지. 난 20년 동안 2000번 설계를 바꿔가며 연구했어요" 할아버지는 기어이 장치를 시연해 보였다. "큰 원판 자석이 사이에 아무런 연결도 없이 돌아. 신기하지? N·S극이 붙고 밀어내는 원리로 스스로 돌아요" 원판이 돌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에너지 손실 없이 투입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될 거야. 핵발전소도 필요 없는 안전한 무공해 에너지 장치지"

옆에서 내내 조용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역정을 냈다. "그만 집어치워요. 되지도 않는 걸 갖고. 그만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사람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남이 안 된다는 거,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 그게 발명이야. 인류를 바꿀 수 있는…"

2018년 8월20일부터 26일까지 제21차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렸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노부부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부는 상봉장에서 들었던 부모와 형제들 소식을 내게 전하면서 얼마간의 활기를 되찾았다. 대화중에 내가 땀을 흘리자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작은 생수 한 통을 꺼내왔다. "외금강 호텔 냉장고에서 챙겨왔어요" '금강산 샘물' 이었다.

할아버지가 종이 두 장을 바닥에 펼

박갑일 할아버지기 북의 외금강 호텔 냉장고에서 가져온 '금강산 샘물'을 기자에게 권하고 있다.

쳤다. 한 장엔 북측 가족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있었다. "주소를 알았으니 이제 편지를 부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 장에는 앞서 적십자사에서 보내온 북측의 '가족 생사확인서'였다. 이미 사망과 생존이 확인돼 인쇄된 글씨 아래 빈칸에 할머니의 오빠와 언니 이름, 자녀관계 등을 손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 넣었다. 이번 방북으로 새로 확인한 것들이다.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가 죽은 줄 알았던 오빠는 고향에 돌아와 일가를 이루고 살았다. 1·4후퇴 때 함께 피난했다가 헤어진 언니부부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1990년도에 마지막으로 고향집에 편지를 보냈단다.

"오빠·언니 소식 들어서 신기하고 기뻤어요. 알게 돼 속이 시원합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고향집은 그대로였을까. "고향집에는 오빠의 둘째 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꿈을 꾸는 듯했다. 다시 한번 되뇌었다. "고향집에 조카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매번 그랬듯 이날도 분주했다. 이번엔 북에서 가져온 사진을 꺼냈다. 할머니의 아버지 사진, 여동생 부부 사진, 오빠의 가족사진이다. 사진 속 아버지와 여동생은 할머니와 많이 닮았다. 상봉장에서 처음 만난 북의 조카는 이모를 보자마자 "엄마하고 똑같다"며 울었다. 여동생 부부의 사진은 지난 1월1일에 찍혔다. 여동생은 이후 3개월도 채 살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게 전하는 동안, 할머니는 빛바랜 아버지의 흑백사진을 들여다봤다. "아, 우리 아버지…" 작고 여린 소리로 속삭였다. 사진 속 늙은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든 딸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67년을 기다려 사흘을 만났다. 첫 만남에서 "그저 담담했다"던 노부부도 헤어질 때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부지런히 훔쳤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작별상봉에서 자신을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던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에게 말했다. "경의선 연결되면 내가 제일 먼저 기차 타고 평양 갈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납시다"

취재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가끔씩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안부를 물었고, 여전히 발명 중인 발전장치에 대한 기대와 자랑을 빠뜨리지 않았다. "강 기자, 이건 세계적으로 엄청난, 획기적인 발명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진 발명이라면서도 결국 돈으로 환산된 기대치를 드러내곤 했다.

"내가 100억 달러쯤 벌면 강 기자한테 1억 달러 줄게"

"아이고 어르신 말씀은 감사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하하하, 그럼 경향신문에 광고 주면 되겠나? 발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가장 먼저 강 기자한테 특종 준다. 이거 기획특집으로 경향신문에서 함 다뤄보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 발명가 박갑일 할아버지는 발전장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21년 5월 세상을 떠났다.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